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마태오 복음사도 / 11월 16일

루가 제8주일

성 요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성 닐로스 수사

제6조 /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 고린토 후 9, 6-11 / 봉독서 272
- 복음경 : 루가 10, 25-37 / 128. B 7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뾰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아이들을 위해 서서 여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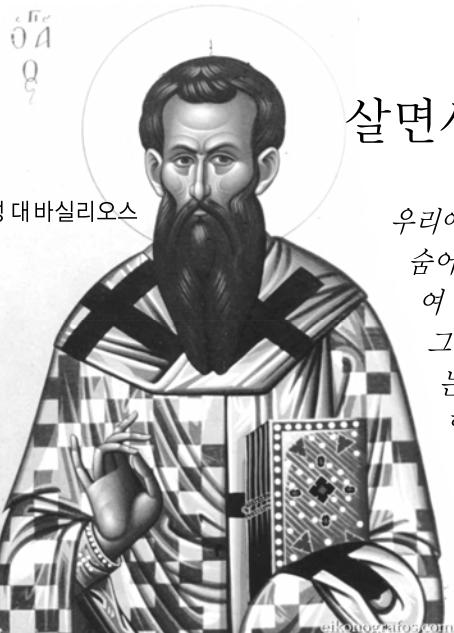
한 번은 뾰르피리오스 성인이 아기온 오로스(아토스 성산)를 가기 위해 데살로니카에서 예리소 행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좌석 표를 구하지 못해서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성인 옆에는 젊은 청년들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옆에 노인, 그것도 수도사제가 서있는 것을 보고도 무관심하게 있는 것을 보고 한 신사가 젊은이들을 질책하였습니다. 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라는 것이었지만, 젊은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 신

사는 자신의 자리를 성인에게 양보했습니다. 성인은 감사를 드렸지만, 자리는 사양했습니다. 예리소에 도착할 때까지 서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신사는 왜 자리를 사양했는지 성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인은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사가 이해하지 못하자, 성인은 다시 설명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혼낸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

☞ 4면으로 계속



성 대바실리오스

살면서 겪는 시련이 주는 축복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 뒤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느님의 깊은 목적이 있기에 그것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며 영적 보상을 받을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문제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시련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 대 바실리오스의 가르침으로 들어 봅시다.

“불순물이 섞인 금을 센 불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금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불이 금을 정화하듯 슬픔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시련들이 결국에는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자양분과 근육 운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에 합당한 모든 인내와 감사로써 받아들인다면 시련은 그리스도인을 완전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비록 그것이 약점과 아픈 곳을 건드린다 해도 우리는 절대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련도 견디면서 인내심이 생겨날 것이고 이 인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악의 길에서 벗어나 덕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우리 능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시련과 더불어 이겨낼 방법도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는 결국 시련도 이겨내고 그것으로 인한 축복도 받게 됩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생명의 말씀들 2

끔찍한 말!

신성모독(神聖冒瀆)...! 역겹고 끔찍한 말이다. 공포가 서려있고, 하느님에 대한 반란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은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증오감의 표현이다. 이것은 악의에 찬 마음에서 생겨난 이상(異常) 성장물로서 혹이나 사마귀 같은 것이며, 못되고 사악한 영혼을 지닌 괴짜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성 넥타리오스 대주교

너 자신을 비판하라!

너 자신을 비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너 자신의) 성향을 없애 버리게 될 것이다. ▷ 성 발사누피오스(6세기)

저 또한 구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하느님, 저는 제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저 또한 구원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 그밖의 모든 사람이 없는 낙원이 과연 어떤 곳 일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신신학자 시메온 성인(10-11세기)

선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선한 생각으로 대하라. 어떤 금욕적 실천도 선한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성 피아시오스 아토스 산 수도자

그분을 네 안에 모셔라...

하느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너의 마음 속에 그분을 간직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 성 그레고리오스 니사의 주교 신학자

▶ 아타나시아



☞ 1면에서 계속

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잘못 행동하였습니다. 노인 수도사제가 오래도록 서 있게 방치했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야단을 들은 후,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혹은 당신이 양보해준 자리에 내가 앉았다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

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오랜 시간 그들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 일어나 침묵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양심에 의해서 회개할 때 비로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식

대교구

■ 성탄 대림절 시작 ▷ 오는 11월 15일(수)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대림절’이 시작 됩니다. 이 기간은 아래와 같은 금식 기간이므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축일표에 따라 :

- 11월 15일~12월 17일 : 생선은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단, 수·금요일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모두 금합니다.)
- 12월 18일~12월 24일 :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 테올로고스 수도사제 방문 ▷ 지난 11월 7일(화)에 아토스 성산의 테올로고스 수도사제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울산 성 디오니시オス 성당에 머물면서, 한국 정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시는 동안 하느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하느님의 양떼를 위한 좋은 사목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철야예배 ▷ 오는 12월 1~2일에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1일 금요일에 출발하여 2일 토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11월 26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11월 13일(월)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콘스탄티노플의 종대주교 축일
- 11월 16일(목) ▷ 성 마태오 복음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